

보도해명자료

('14.02.21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글로벌 기업 육성사업 중복선정... 특혜 논란' 보도에
대한 입장 ('14.2.21. 서울경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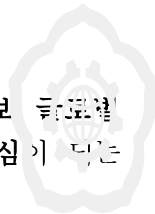
1. 기사내용

- 산업부의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과 중기청의 World Class 300은 유사한 성격의 프로그램으로 중복 선정된 특정 업체에게 특혜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

-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은 기업경영 전략, 우수인재 확보, 글로벌 마케팅 전략, 파이낸싱 구조화 등에 대한 “자문”이 중심이 되는 사업으로 재정투입 위주의 타 프로그램들과는 차별화
 - 산업부는 타 프로그램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라도 기업이 성장을 위해 상기와 같은 지식기반의 자문 제공이 필요하여 후보기업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 배제하지 않음 ('13.7월 사업공모시 기 공지)
- 다만 글로벌 전문기업 지원시책 전반을 재점검하여 기업별로 타 정부 프로그램에서 지원받고 있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하는 한편, 의지와 역량을 갖춘 중소·중견기업을 더욱 폭넓게 수용하여 특혜 논란이 없도록 할 계획임
- 작년도 1차 후보기업 모집시에는 인지도 부족 등으로 참여기업이 많지 않았는데 올해에는 더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기대

※ 자료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기업협력과 오승철 과장 (044-203-4330)
박홍일 사무관(044-203-4232)

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